

경제

위기의 지역건설업

하 특단대책 필요하다

금융규제 풀어 '자금숨통' 틈워야

대부분 수도권 사업장 ... 세제혜택 소외 PF대출 막지 말고 회수시기 늦춰주길

지역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가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적대다간 건설업체 출도산→실업 대란→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져 회생하던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은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확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보증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 풀어야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위기를 부른 주범이라고 꼽았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택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제외됐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대다수 건설사들이 주택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 사업을 접고 수도권에 진출해 있어 세제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증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시기는 신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주택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가의 공공주택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면 민간 주택건설업계는 고사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증자리주택과 도심의 민간 주택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F 조속 재개·브리징 보충재 도입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로 빠지자 금융권이 신규 PF 대출을 기피하거나 자금 회수를 서두르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이같은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고쳐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한 '브리징 보충'이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건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면 고사상태의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가능한데 담보 성격상 보증사과의 위험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 등은 지난 6일 대책 회의에서 남양건설(주)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전남 65개 협력업체에서 최소 350여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보증서 발급과 은행권의 긴급 자금 지원 ▲하도급업체의 계속 시공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8일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임단협 투표' 통과 될까

노조 오늘밤까지 ... '불가피론' 우세 속 일부 반발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일 제22차 본교섭에서 합의한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8일 까지 이를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는 광주공장과 광명공장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곡성공장은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8일 밤 11시30분까지 근무조별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는 9일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이번 찬반투표는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대처 상황에서 가까스로 이뤄낸 합의임에도 노조 일부에서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회사 정상화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다음 주 초 채권단이 약속한 1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 밀린 임금과 협력사 대금결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사측은 이번 달 27일부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밀린 급여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잠정안이 부결되면 합의안 폐기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만을 위해 조합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낸 노조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 간 '노-노 갈등'이 재현되면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워크아웃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무더기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집행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잠정안 가결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잠정안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이르면 9일 동의를서를 채권단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5년 세계3대 광산업 선진국 진입"

광산업진흥회 10돌 ... '중장기 발전 전략' 상근부회장에 조규중 전남대 교수 선임



러스터 구축과 한국이 세계 5대 광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편 광산업진흥회는 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열어 전영복 상근부회장 후임으로 조규중(58·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전장부품생산지원센터장·사진) 전남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취임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진흥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2020 중장기 발전전략'을 선포하고, 2015년까지 세계 3대 광산업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7일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LG이노텍 대표이사)에 따르면 최근 166개 회원사와 광산업육성 지원기관, 광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 광산업 로드맵인 '2020 중장기 발전전략'을 선포했다.
광산업진흥회는 회원사를 현재보다 2배 늘려 300여 업체로 확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광산업진흥회로 통합해 회원사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과 수도권 회원사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수도권 분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광산업진흥회는 한국 광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광주 광산업을

건설기업 체감지수 13개월만에 최저치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지수가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달인 2월 대비 5.9포인트 하락한 71.7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50.0)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것이다.
건설업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CBSI는 기존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78.6으로 전달(92.9) 대비 14.3포인트 떨어지며 전반적인 체감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중견업체 역시 2월 80.0에서 3월 70.4로 내렸다.
/연합뉴스

국내 렉서스 1만1천여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도요타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ES350,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에서 제작사 결함의 결함발견 수습사에서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1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국내에 수입·판매된 렉서스ES350 1만1천232대와 작
년 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판매된 캠리 1천549대, 작년 2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판매된 캠리 하이브리드 203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올해 2월 미국에서 리콜된 바다 매트와 같은 종류다.
/연합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726.60), 코스닥지수 (510.90), 금리 (3.82%), 원·달러 환율 (1,120.5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토지매매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토지매매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www.assetkorea.com
부동산경매 전문회사 011-684-3888
부동산경매를 통한 제테크에 관심있는 주부 직장인, 실전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및 경매업무종사자, 금융기관 대출, 채권 담당자 및 전업경매투자자